

전체 ☀️☀️ 신선 ☁️ 가공 ☀️ 수산 ☀️☀️



# 농수산물 수출

## Zoom In 98호

I 기능 성분 풍부한 '색깔 보리' 가공식품



II 22년 신선농산물 수출검역 간담회 개최



III 한국산 다육식물묘 코스타리카 수출검역요건 알림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98호 2022. 6. 2(목)

‘22.5.31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한 51.9억\$

##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1.8%	  11.4%	  39.3%
627.7백만불	3,146.8백만불	1,411.3백만불
 닭고기, 유자, 배, 고추	 면류, 과자류, 음료, 주류	 김, 참치, 명태, 대구, 연어, 고등어
 인삼, 김치, 딸기, 파프리카	 켈런, 물, 장류, 리큐르	 어묵, 해삼, 전갱이, 톳

##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b>미국</b> 792.9백만불(17.2% ↑)	환율 상승과 더불어 중국 봉쇄조치로 항만 적체 개선되면서 신선·가공 증가세	 인삼(14.8%), 김치(13.6%) 음료(43.3%), 라면(26.4%)  버섯(△26.1%), 닭고기(△7.4%) 명태(△26.2%),
  <b>중국</b> 885.6백만불(23.7% ↑)	봉쇄조치 영향으로 신선·가공 감소세이나 수산물 호조 전체 증가세 견인	 연어(321,056.5%), 라면(25.1%), 명태(6,210.2%)  인삼(△33.4%), 유자(△6.8%)
  <b>신남방 (ASEAN + 인도)</b> 1,104.8백만불(14.2% ↑)	코로나 안정세로 닭고기, 과실류 호조에 힘입어 신선 증가, 음료·라면 등 가공도 증가세	 참치(6.4%), 음료(22.5%) 닭고기(93.3%), 인삼(34.0%),  딸기(△6.0%), 연초류(△2.5%)
  <b>일본</b> 892.5백만불(9.1% ↑)	김치, 파프리카 실적 저조로 신선 감소세 불구하고 연초류, 과자류 호조에 따른 가공 상승세	 인삼(12.4%), 연초류(25.8%) 식초(52.0%), 김(18.7%),  파프리카(△9.3%), 김치(△27.3%) 참치(△9.2%), 라면(△7.7%)
  <b>EU + 영국</b> 364.9백만불(35.8% ↑)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항로 물동량 줄어들면서 전체 증가세 둔화	 인삼(18.6%), 소스류(6.3%) 참치(51.3%)  버섯류(△15.8%), 어묵(△9.2%)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22.1.1 ~ 5.31

## □ 인삼

- (중국 23.3,  $\Delta$ 33.4) 뿌리삼 물량 정상통관 되었으나 상하이 중심으로 통관지연 및 물류지체 지속
- (베트남 18.2, 51.9  $\uparrow$ ) 합리적인 가격과 섭취의 편의성을 높인 간편 소비제품(홍삼정, 음료 등) 인기
- (미국 14.8, 14.8  $\uparrow$ ) 쓴맛에 대한 거부감이 낮고 접근성이 높은 홍삼정 등 품목의 수출 증가세

**94.2백만불 ( $\Delta$ 3.9%)**

주요 수출국 : 중국(23.3백만불,  $\Delta$ 33.4%), 베트남(18.2, 51.9%), 미국(14.8, 14.8%),  
일본(13.3, 12.4%), 대만(9.5, 14.4%), 홍콩(6.7,  $\Delta$ 21.3%)

## □ 닭고기

- (베트남 28.6, 95.8  $\uparrow$ )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등 단체급식 수요 감소함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했던 전년 기저효과 및 베트남 정부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 이후 제조공장 가동 정상화 및 전국 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에 따른 단체급식 수요 회복에 따른 증가세

**36.6백만불 (54.0%  $\uparrow$ )**

주요 수출국 : 베트남(28.6, 95.8%), 미국(2.9,  $\Delta$ 7.4%), 홍콩(2.1, 12.5%),  
일본(1.2,  $\Delta$ 47.4%), 캐나다(0.6, 23.1%), 대만(0.4,  $\Delta$ 33.0%)

## □ 라면

- (중국 72.0, 25.1  $\uparrow$ ) 사재기 증가 물량 및 현지 마케팅 강화
- (미국 40.6, 26.4  $\uparrow$ ) 한국 라면 품질에 대한 소비자 만족에 따른 수요 지속
- (일본 25.7,  $\Delta$ 7.7) 전년 코로나 긴급사태로 인한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316.2백만불(19.0%  $\uparrow$ )**

주요 수출국 : 중국(72.0, 25.1%), 미국(40.6, 26.4%), 일본(25.7,  $\Delta$ 7.7%),  
필리핀(12.7, 20.7%), 태국(12.0, 32.3%), 대만(12.0, 10.0%)

## □ 김

- (미국 84.7, 57.1  $\uparrow$ ) 코로나 완화 및 외식수요 증가로 식당용 스시김의 수요가 늘어난 것과 더불어 맛과 형태에 특색을 갖춘 스낵용 신제품 인기
- (중국 52.7,  $\Delta$ 22.1) 상하이 봉쇄 등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수출 감소세
- (일본 50.0, 18.7  $\uparrow$ ) 일본 내 한류 및 한국식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되며 김밥김, 조미김 등 수출 증가

**311.1백만불(14.9%  $\uparrow$ )**

주요 수출국 : 미국(84.7, 57.1%), 중국(52.7,  $\Delta$ 22.1%), 일본(50.0, 18.7%),  
태국(18.1, 15.3%), 대만(13.4, 19.1%), 러시아(12.7,  $\Delta$ 25.0%)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7,8)

## 농진청 이슈



### 기능 성분 풍부한 '색깔 보리' 가공식품 다양하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소비자에게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가공식품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식품별 제조에 적합한 가공 특성을 가진 색깔 보리 품종을 선발, 추천하고 있다. 색깔 보리는 일반 보리보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 있으며, 주요 기능성 성분인 베타글루칸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도 많이 함유돼 있다.

검정보리('흑누리', '흑수정찰') 음료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보리 전분이 적당히 용출돼 구수한 숭늉 맛이 난다. 미국, 호주, 일본, 베트남에 수출한다. 보리커피('흑누리', '흑다향')는 색깔 보리와 디카페인 원두를 특정 비율로 배합해 커피의 맛과 보리의 기능 성분은 유지하면서 카페인 함량은 90% 이상 줄였다. 제주도에서 재배한 보리('강호청')를 이용해 올해 처음 출시된 청색보리 음료는 출시 1개월 만에 60만 병의 매출을 기록해 색깔 보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확인했다. 보리 함량이 100퍼센트인 보리국수('흑누리', '강호청')도 개발돼 판매를 앞두고 있다.



삼색보리쌀



밤에커피



검정보리떡



검정보리면

### 맛춤형 신선도 유지 기술로 '조생종 양파' 수출 가능성 확인

#### - 싱가포르 수출 양파, 중국산보다 30% 비싸게 판매...연중 수출 시동 -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 양파 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조생종 양파에 적합한 신선도 유지 기술을 투입하고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한 결과, 현지에서도 신선하게 유통·판매돼 수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범 수출에는 압력(압상)으로 인한 조생종 양파의 물러짐, 결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확 후 아물이 처리(큐어링) △균일한 크기(지름 9±1cm) 선별 △운반함 이용(팰릿 적재) △습기를 흡수하는 흡습지 사용 △1도(°C) 냉장 수송 △현지 도착 후 송풍 처리 등의 기술을 적용했다. 국산 양파는 4월 20일 배에 실어 5월 1일 싱가포르에 도착했으며, 5월 17일까지 현지 레스토랑과 가공업체, 소매점에 공급·판매됐다. 양파의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돼 좋은 품질을 인정받았고, 중국산 양파보다 30~4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수출 양파



양파 수송



컨테이너 적재



현지 판매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3



## 22년도 신선농산물 수출검역 간담회 개최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검역적 안전성 확보 및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수출검역 간담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수출업체 및 생산자, 유관기관 등 수출 관련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 수출국별 수출 검역 여건 및 동향을 공유하여 우리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수출 관련 유관기관들은 협업을 통해 각 기관별 수출 관련 정보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등에 좀 더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 한국산 다육식물묘 코스타리카 수출검역요건 알림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다육식물 7개속 묘의 코스타리카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이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코스타리카로 수출 가능한 7개속 식물은 에케베리아(*Echeveria* spp.), 크리솔라(*Grassula* spp. *Grassula helmsii*는 제외), 에오니움(*Aeonium* spp.), 세덤(*Sedum* spp.), 하월시아(*Haworthia* spp.), 유포르비아(*Euphorbia* spp.), 칼랑코에(*Kalanchoe* spp.)등이다. 수출자는 코스타리카 농림축산부에서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하고, 흙·꽃·달팽이류가 없어야 하며, 수출검역증명서상에 *Spodiptera litura*(담배거세미나방) 무감염 증명에 대한 부기사항 등이 필요하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054-912-0634)나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http://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